

문서번호	공공협력본부-3082
보존기간	년
결재일자	2016.06.29.
공개여부	공개
방침번호	

★주임	장애인복지팀장	공공협력본부장		
김수민	유연희	전결 06/29 송성숙		
협조				

발달장애인 행동 이해와 지원에 대한 가이드북 제작 및 보급 관련 실무자 FGI 결과보고



「발달장애인 행동 이해와 지원에 대한 가이드북」 실무자 FGI 결과보고

발달장애 입주인의 행동 이해와 지원에 대한 가이드북을 제작하고자,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실무자 FGI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보고함.

※공공협력본부-2942호(2016.06.22.)와 관련임.

I 회의 개요

- 목 적 : 자립생활주택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의 행동 이해와 지원에 대한 가이드북의 현장활용도와 타당도 향상을 위해 실무자 FGI를 진행함.
- 일 시 : 2016. 6. 27.(월) 14:00~16:00
- 장 소 : 서울시복지재단 별관 10층 상담실
- 참 석 자 : 총 5명(실무자 4명 및 재단직원 1명) ※고수정, 김보라 코디네이터는 불참

연 번	이 름	소 속	비 고
1	김 수 정	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	
2	박 보 현	남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	
3	유 신 희	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	
4	윤 종 선	사회복지법인 SRC보듬터2	
5	김수민 주임	서울시복지재단	담당 직원

- 회의안건 : 가이드북 제작 관련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(실무자) 의견 수렴
- 진행순서

시 간	내 용
14:00~14:20	· 가이드북 발간 개요, 현황조사 및 사례조사 결과요약 공유
14:20~15:50	· 가이드북 제작 관련 실무자 FGI
15:50~16:00	· 기타 논의 및 향후 일정 안내

II 회의 내용

- 가이드북 발간 개요 안내 : 제작·보급 목적, 추진방향, 구성안, 추진일정
- 추진내용 공유 : 자립생활주택 도전적 행동 현황조사 결과, 전문가 자문 주요결과, 자립생활주택 발달장애인 행동 지원 사례조사 주요결과
- 실무자 의견 수렴
 - ▶ 발달장애인 행동 이해와 지원 가이드북의 구성에 대한 의견
 - ▶ 현장 활용도 높은 가이드북 개발을 위한 의견
 - ▶ 발달장애 입주인의 행동 특성 이해 정도, 지원 과정
 - ▶ 발달장애 입주인의 행동 지원 후 변화 경험
 - ▶ 기타 논의

1. 가이드북 구성 관련

□ 각 챕터별 비중

- 기본적인 발달장애인의 행동에 대한 이해는 다른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기에, 이번 가이드북에서는 지원전략과 지원과정, 특히 사례를 충분히 다루었으면 함.
- 다만, 코디네이터의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기본적인 발달장애인의 행동에 대한 자료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행동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도 어느 정도 담았으면 함.

□ 행동유형 분류

- 신체적(던지기 등), 심리적(욕설, 거짓말 등), 환경적 원인으로 구분해도 좋겠음.
- 시설에서만 생활했던 입주인과 집에서 지내다 시설로 들어갔다가 나온 입주인의 행동 유형이 다를 것 같음. 환경적 원인을 이와 같이 분류해도 좋겠음.

□ 타 기관의 사례

- 자립생활주택 입주민들이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분들이므로 거주시설의 지원 사례도 일부 다루었으면 함(시설협회의 연구(김미옥 외) 등에서 발췌).
- 발달장애인들이 거주시설에서의 단체생활로 인해 나타나는 도전적 행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, 거주시설 보다는 ‘거주시설에서 운영하는 체험홈’ 거주인 사례, ‘그룹홈’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면 도움이 될 것 같음.
- 지원인이 발달장애인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욕구 등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행동 지원을 적절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. 의사소통 지원 사례도 다루었으면 함.

2. 현장 활용도 높은 가이드북 개발 관련

- 특정 행동 지원 시, 지원의 수위와 가이드라인(빈도, 기준, 원칙 등)을 제시해주면 좋겠음.
-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 지원을 위한 슈퍼비전을 받고자 센터 내부(국장, 소장 등)에 상의를 하면, 입주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자기결정을 우선시하라고만 강조하곤 함. 별다른 지원기준이 없어서 전담인력 혼자서 판단하게 되는데 지원 후 결과가 나쁠 수 있어 딜레마에 빠지곤 함.
- (가)형, (나)형 보다 (다)형 주택에 지금보다 중증의 발달장애인들이 지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음. (다)형에 상근하게 될 전담인력이 예방, 대비적 차원에서 행동지원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면 함.
- 가이드북 사이즈는 작년에 만든 사이즈와 동일했으면 좋겠고, 컬러감이 있으면 좋겠음.

3. 발달장애 입주민의 행동 특성 이해 및 지원 tip 관련

- 입주민의 특정 행동에 대해 전담인력이 매일 만나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나, 두드러진 행동이 발생할 때에는 거의 매일 지원하려고 노력함. 근로하는 입주민의 경우 지원하기에 현실적으로 시간적인 제약이 있음.
- 독립연대는 센터 내 자문위원(지적장애인복지관 최선자 국장, 송실대 김경미 교수)에게 지적장애인의 행동, 자립지원에 대한 자문을 받기도 하나, 일상적으로는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함.

- 발달장애인들을 자주 접해야만 행동의 특징을 잘 이해할 수 있음. 문제행동의 경우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(원인)를 파악하는 것이 지원의 시작이 될 수 있겠음.
- 발달장애인들이 지원하는 기관 내 직원들 간 위계서열을 파악하여 그에 맞춰 행동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음. 지원인력과 발달장애 입주인과의 적절한 관계형성이 지원의 시작점임. 지원해야 하는 행동을 파악하여 특정 행동을 수정하려고 하지 말고, 자신의 편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초기 관계형성이 잘 이루어져야 함(함께 여행가기, 동성의 경우 함께 목욕가기 등을 통해 친밀감 형성).

4. 발달장애 입주인의 행동 지원 후 변화 경험 관련

□ 타 운영사업자 (나)형 주택에서 지내고 있는 이전 입주인 지원 사례 공유

- ✓ A씨는 센터 직원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다른 피드백을 받거나, 좋지 않은 얘기(지적 받거나 지시 받음)를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음.
- ✓ 자신의 팔을 물거나, 주택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리거나, 휴대폰을 집어던져서 네 차례 정도 망가뜨림.

- ☞ 1) 회사 사람들에게 지적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함.
- ☞ 2) 휴대폰을 망가뜨릴 때마다 입주인의 돈을 찾아서 휴대폰매장에 함께 방문, A/S 비용을 직접 납부하도록 하자, 현재는 깨지지 않을 정도로 던지거나 점차 던지는 빈도가 줄어듦.
- ☞ 3) 지지적 상담을 반복하여 팔을 무는 행위도 점차 줄어듦.
- ☞ A씨는 현재 타 운영사업자가 지원하는 (나)형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 2회 해당 센터에 방문함. 아직도 부인이 잔소리를 하면 자해 행동이 남아있기는 하나 강도, 빈도가 줄어듦.

□ 편집적인 물건수집벽이 있는 입주인의 지원 사례 공유

- ✓ B씨는 거주시설 입소 전 형제들과 함께 지낼 때에 형제들로부터 구타를 당함. 할 일이 없어서 폐품을 모아서 내다 팔곤 하였고, 돈을 벌 수 있고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됨.
- ✓ 물건을 줍거나 휴지통을 뒤져서 가져와 자립생활주택 내·외부에 산더미로 쌓아둠. 그로 인해 주민들과 마찰, 담배꽂초로 인한 화재 위험도 발생함.

- ☞ 1) 내부적으로 지원의 수준을 정함. 갑자기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지 않고, 리어카를 사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워온 물건을 내다 팔도록 함.
- ☞ 2) 물건정리 컨설팅(5회기)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 연계하여, 쓸 수 있는 물건(보관물품상자), 못 쓰는 물건(폐기물품상자), 기증할 물건(기증물품상자) 등으로 나누어 구분하여 담을 수 있도록 함.
- ☞ 3) 인근 고물상에서 3개월 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, 물건을 주워오는 행동이 줄어듦.
- ☞ B씨는 총 9개월 동안 점차 수집벽이 줄어듦. 현재는 몸이 힘들어 고물상에 나가지 않음에도 물건 주워오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되었고, 인근 신문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일을 잘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됨.

5. 기타 논의

- 발달장애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, 현실적으로 코디네이터들이 교육을 받으려 다니기에 한계가 있음.
- 독립연대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어, 최근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에서 진행하는 ‘발달장애인 자기옹호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(10회기)’ 듣고 있음.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타 기관 종사자들과의 교류, peer-supervision 시간이 도움이 됨.
- 권역별 운영사업자들 간에 지원 시 어려움을 공유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어 긍정적임.
- 발달장애인의 행동 지원을 위한 각기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, 전담인력이 정기적/장기적으로 슈퍼비전 받을 수 있는 기회, 지원인력의 힐링의 시간이 마련되면 좋겠음.
- 운영사업자 직원 전체(특히, 국장급, 센터장급)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함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음. 현재 전담인력에게 지원의 책임이 전적으로 맡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임.
- 2017년에는 ‘발달장애인 자기옹호 지원하기’, ‘발달장애인 사회성 높여주기’와 관련한 가이드북이 제작되면 좋겠음.

III

향 후 계 획

- 1차 집필회의 개최 : 2016. 6. 30.(목)

붙임. 실무자 FGI 자료 1부. 끝.